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한-아세안 노인돌봄 컨퍼런스 참석 및 한+아세안 고위급회의(SOMHD) 참석

□ 과제명

- [수탁25-028-00]2025글로벌보건복지이슈분석을통한효과적대응방안마련

□ 출장기간

- 2025.06.29. ~ 2025.07.05.

□ 출장국가(도시)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페탈링자야)

□ 출장자

- 보건복지부 최준호 국장, 이영우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 이수영 주무관, 심지혜 주무관 등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5.06.29.	한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로얄 출란 쿠알라룸푸르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출국 및 말레이시아 도착
2025.06.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로얄 출란 쿠알라룸푸르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한-아세안 노인 돌봄 컨퍼런스 참석
2025.07.0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로얄 출란 쿠알라룸푸르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한-아세안 노인 돌봄 컨퍼런스 참석
2025.07.0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로얄 출란 쿠알라룸푸르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말레이시아 노인 요양 기관 방 문 및 페탈링자야 이동
2025.07.03.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쉐라톤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제14차 아세안+3 보건고위급회 의(SOMHD) 참석
2025.07.04.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쉐라톤 호텔	보건복지부 출장단	제4차 한-아세안 보건고위급회 의 참석 및 출국
2025.07.05.	한국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한-아세안 노인 돌봄 컨퍼런스 참석
일시	2025.06.30. 9:00 ~2025.07.01. 18:00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루 로얄 출란 쿠알라룸푸루 호텔
참석자	원내: 현옥주 연구원
1일차 주요내용	
<p>○ (Dr. Sakarn Bunnag, 태국) ASEAN Centre for Active Ageing and Innovation(ACAI)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2024년 9월에 설립된 아세안 최초의 고령화 및 혁신센터(태국, 방콕) 소개 - (주요내용) 아세안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설명, ACAI의 설립과 의무, 5개년 전략계획,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함 - (향후계획) 2025년 9월(태국), 10월, PMAC 2026에서 예비 세션 진행 예정. 더불어 ASEAN Active Ageing Index를 개발 중임 <p>○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Malaysia (IBC)) 말레이시아의 노인을 위한 돌봄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식) 2024년 60세 이상 인구 390만 명(전체 인구의 11.6%), 2030년에 15% 이상으로 예상되어 고령 사회로 진입 임박 - (주요내용) 노인 돌봄과 보호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와 다층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p>○ (Professor Dr. Shelly Ann de la Vega, 필리핀) 필리핀의 노인 장기 요양: 상황 및 역량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필리핀의 장기요양 현황과 과제 분석(CCAP 연구) - (주요내용) 국가 차원의 장기요양 시스템 부재와 개선 방안 제시 - (향후과제) 연구를 확대하여 장기 요양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p>○ (Prof. Kwanchit Sasiwongsaroj, 태국) 태국의 초국적 고령화, 은퇴 이후 및 노년 케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배경) 외국인 은퇴자 및 은퇴 후 본국 귀환자들의 노년 케어 문제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 - (주요내용) 당뇨병, 고혈압 등 70~75%가 만성질환 보유, 대부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나 흡연, 음주 등 위험 행동 존재하며, 대부분이 민간 의료 서비스 이용 - (향후과제) 간병 인력 부족, 민간-공공 부문 간 불평등 심화 문제 대응 필요 <p>○ (Dr. Maliki Achmad,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케어 경제 로드맵 및 행동 계획 2025-20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식) 가족 중심의 비공식 돌봄 시스템이 지배적이며, 특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어 성 불평등과 경제적 생산성 저하 초래 - (주요내용) 통합 커뮤니티케어 허브를 운영하여 마을 단위 세대 간 커뮤니티 기반 모델로 예방적 장기요양, 건강 검진, 문화 활동 제공하고 있음 - (진행상황) 국가 장기 개발 계획(2025-2045), 국가 중기 개발 계획(2025-2029) 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p>○ (Dr. Anthony Chan Weiming,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커뮤니티 내 노인 셀프 케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지역사회 기반 노인 자가관리 프로그램(SCOPE)의 효과 평가를 위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발표 - (연구대상) 65세 이상 건강하거나 경증 장애 노인, 14개 노인 활동 센터에서 진행 - (주요결과) 하체 근력 향상, 심폐 기능 개선, 비타민 B12 수치 증가, 헤모글로빈 농도 증가하였으나, 혈당, 혈압 등 주요 바이오마커 개선 효과는 제한적임 - (정책제언) 1) 셀프케어만으로는 생물학적 마커 개선 한계, 2) 개인, 의료진, 정책입안자 등 통합적인 접근 필요 	

○ (양난주 교수, 한국)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발전

- (연구배경)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나타난 시설화,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문제의식)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한계와 커뮤니티케어로 정책 전환
 - 주요 문제점: 1) 재가 서비스의 제한성, 2) 시설화 경향 심화, 3) 사회적 입원 증가, 4) 가족 돌봄 부담 지속
 - 개선 방향: 지자체 주도의 파편화된 서비스 통합,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2차 개혁 추진

○ (Dr. Srinivas Tata, UNESC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령화 검토

- (기관소개) 전 세계 인구의 60%를 지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부 간 플랫폼 구축
- (문제의식) 지역 인구 동향 분석과
- (주요내용)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 검토

○ (Dr. Rahimah Ibrahim,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노인 돌봄 필요성 이해

- (문제의식) 202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30년 고령 사회 예상으로 돌봄 수요 급증과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주요내용) 돌봄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정책적 함의 제시
- (정책제언) 가족 및 지역사회 솔루션에 대한 투자 및 장기 요양 프레임워크 구축
- (향후계획) 정부 역할 전환(복지 제공자→규제자·촉진자), 지역 실버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돌봄의 인식 제고

○ (Dr. Paul Ong,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통합 커뮤니티 케어

- (발표주제) 환자 중심 케어에서 사람 중심 케어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노인이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 영위
- (주요내용) 통합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ICCP)을 통한 제자리 노화 지원
- (향후계획) 통합 서비스의 복잡성,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 개별 전문 영역을 넘나드는 총체적 사고 필요하며 의미 있는 삶 지원, 건강한 의존성 구현

○ (Mr. Tan in Guang and Mr. Nick Carroll, 말레이시아) 하이브리드 보조 의족(HAL) 재활 로봇

- (기술개요) 의학·정보기술·메카트로닉스를 통합한 사이버네틱스 기술로 인간의 신체 능력을 향상할 혁신적 재활 도구
- (주요내용) 착용자 의도 감지 기반 재활 로봇의 실제 적용과 효과

□ 2일차 주요내용

○ (Dr. Aleksandar Sasha Bodiroza, UNFPA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인구 고령화, 성별 및 생애 과정

- (발표주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성별, 생애 과정의 교차성에 대한 분석
- (주요내용) 2051년 아시아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아세안에서 203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 1억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정책제언) 세대 간 유대 강화, 디지털 포용, 고령 친화적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 연령주의 퇴치

○ (Dr. Saidatul Norbaya binti Buang, 말레이시아 보건부)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준비, 황금기의 더 나은 케어

- (문제의식) 말레이시아는 2023년 60세 이상 인구 11.6%, 2030년까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주요내용)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 발전 과정과 정책과제
- (정책제언) 생애 과정 접근법 채택,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케어 제공, 건강한 노화 촉진

○ (Representative from SOMSWD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 (주요현황) 2024년 60세 이상 인구 약 49,500명(전체 인구의 11%) 예상
- (주요내용)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2024~2030년 고령자 행동 계획 승인, 지역사회 기반 케어 확대

○ (구인회 교수, 한국)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

- (주요현황) 3단계 노후 소득 보장제도 소개: 기초연금(70% 대상), 국민연금(확정급여형), 사적연금
-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현황과 과제

- (향후과제) 급속한 인구 고령화, 낮은 국민 신뢰, 보장성 미흡,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개선

○ (Representative from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베트남) 베트남의 노인을 위한 포괄적 사회 보호

- (문제의식) 2024년 60세 이상 인구 1,700만 명(전체 인구의 17%), 2050년 16% 예상
- (주요내용)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사회보장 시스템
- (향후계획) 사회보장 확대,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 강화

○ (Assoc. Prof. Dr. Ngee Choon Chia,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장기 요양

- (문제의식)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 증가
- (주요현황) 다층적 재정 지원 시스템 운영
- (정책제언)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케어에 투자 확대 필요

○ (Mr. Hairil Fadzy bin Md Akir, 말레이시아 국가인구개발위원회) 아세안 고령화 연구 네트워크

- (발표주제) 아세안 지역의 파편화된 연구,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론, 제한적 국가 간 협력 문제 해결 등에 따라 2019년 설립된 아세안 고령화 연구 네트워크의 성과와 미래 계획
- (기대효과) 증거 기반 정책 지원, 지역 차원의 통합적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 (필리핀) 필리핀의 커뮤니티 기반 케어 센터

- (문제의식) 2022년 60세 이상 인구 930만 명, 2030년 1,300만 명 예상
- (주요내용)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
- (향후과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

○ (미얀마) 미얀마의 노인 돌봄 정책과 과제

- (문제의식) 인구 고령화 가속화, 2050년 60세 이상 인구 전체의 상당 비율 차지 예상
- (주요내용)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향후과제) 제한된 자원, 농촌 지역 접근성 문제,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개선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협력 프로그램

- (문제의식)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1년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예상
- (주요내용) 부처 간 협력 프로그램 출범(2023년)
- (향후목표) 예방적, 능동적,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촉진

○ (태국) 태국의 노인 권리 보호 프로젝트

- (문제의식)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 2030년까지 초고령사회 예상
- (주요내용)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를 통한 노인 보호 시스템
- (향후과제) 자립적이고 행복하고 평등한 고령화 사회 이행

○ (베트남) 베트남의 노인 복지 정책

- (문제의식)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주요내용)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 시행
- (모범사례 소개) 세대 간 자조 프로그램: 소득 창출, 활동 및 자원 동원, 사회적 돌봄, 유대감, 평생 학습, 건강관리, 가정 간호, 자조 등 8가지 활동 영역으로 구성

○ (배지영 박사, 한국)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 (발표배경)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파편화된 서비스에서 통합적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 (주요내용) 통합 돌봄 정책의 발전과 전략
- (향후계획) 2026년 전국 시행 준비,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국제 협력 강화

②	말레이시아 노인 장기요양 기관 현장방문
일 시	2025.07.02.(수) 8:00 ~ 12:00
장 소	말레이시아 노인 장기요양 기관
참석자	현옥주 연구원
- 말레이시아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장방문	
③	제14차 아세안 SOMHD 및 제4차 한-아세안 보건고위급회의 참석
일 시	2025.07.03.(목) 9:00 ~ 04.(금) 14:00
장 소	페탈링자야 웨라톤 호텔
참석자	현옥주 연구원
제14차 아세안 SOMHD 및 관련 회의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의장국 발언) • (말레이시아) ASEAN 공동체와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며 중국, 일본, 한국과의 아세안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중·일 발언) • (중국)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국가 간의 경험 교환, 자원 공유, 노력 조정을 촉진해 왔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언급함. 2024년 중국 질병통제예방역학센터는 FETN (Fei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ma)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보건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함.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주요 분야로 ①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②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전염성 질병 해결 ③ 보건 정책, 전통 의학, 모자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보건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 ④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육성함으로써 역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보건 및 의료 혁신 촉진을 제시함. • (일본) WHO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의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UHC 허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저·중소득국 보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UHC 관련 지식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이행할 계획을 밝힘. 아세안 회원국, 중국, 한국이 아세안의 소중한 통찰력과 기술을 제공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함. • (한국) 아세안 보건협력회의 출범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최선의 보건 정책과 기술 전파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왔으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지속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함. 작년 제2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한국은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아세안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아세안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이 고위급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역내 협력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 아젠다 2. 안건채택 • (사무국) 의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모든 참가국이 의제 채택에 동의하였음. ○ 아젠다 3. 아세안 관련 회의 주요 결과 • 아세안 사무국은 2024년 8월 제10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2024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함. 제10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는 아세안 보건 회복력 혁신이었으며, 국제보건규정의 지역 핵심 역량 달성을 위한 가속화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였으며, 마약 안보 및 자립에 대한 아세안 공약 선언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함. 제19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는 2024년 회의에서 확인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2025-2026 협력 분야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의제 4: 제13차 APT SOMHD 회의 개요

- 아세안 사무국은 작년 7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3 회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함. 제13차 아세안+3 회의의 주제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따른 새로운 맥락에서의 보건 회복탄력성 혁신이었다고 보고함. 말레이시아 의장국의 우선순위로 좋은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것을 제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내 보육원 및 유치원을 위한 건강한 영양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 아세안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결과물을 발표함. 더불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공중보건 비상운영센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2025년 5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아세안 의약품 안보 및 자립 전략(ASEAN Drug Security and Self-Reliance, ADSSR),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식품 안전 보장, 임상시험 생태계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함.

○ 의제 5: 2024-2025년 우선 협력 분야 이행 현황

○ 의제 5A: 보건 우선순위에 대한 이행 현황

○ 아세안+3 플랫폼을 통한 협력상황 업데이트(아세안 사무국)

- NCD 분야에서는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1에서 진행하는 NCD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우선 분야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작업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함. 이는 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액티브 에이징 및 혁신 센터의 운영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질병 모니터링의 우선순위 분야에서는 태국을 조정 사무국으로 하는 아세안+3 현장 역학 훈련 네트워크의 승인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보건 인적 자원 분야에서는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3의 보건 인적 자원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함.
- 보편적 건강 보장은 클러스터 3의 우선 순위인 UHC에 대한 실천 활동이 진행 중이며, 전통 및 보완 의학은 관련 활동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공중보건 응급상황 우선순위 분야에서는 클러스터 2로, 아세안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역내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며, 특히 ACPHEED (ASEAN Centre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와 관련된 지속적인 구축 및 복구 작업과 아세안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APEX)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함.
- 정신 건강 분야에서 정신 건강 증진은 클러스터 1의 우선 순위이며, 아세안 회원국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개발 활동이라고 설명함.
- 항생성 내성 분야는 클러스터 2의 우선 순위이며, 원헬스 접근법을 사용하여 AMR에 대처하기 위한 아세안 전략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있음
- 재난 보건 관리는 아세안 지역 역량 강화 프로젝트 및 ARCH 프로젝트(현재 2단계 실행 중)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아세안+3 정상성명 협력 관련 업데이트(브루나이)

- 성인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서 이행에 대한 배경과 요약 내용을 공유함.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진행 중임. 2024년 6월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1 회의에서 자금을 조달할 준비가 되었고,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2024년 7월 5일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 Korea Cooperation Foundation, AKCF) 프로젝트 관리팀에 제출한 이후 동년 7월에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함. 이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브루나이에 FE 협력 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함. 현재 사무국은 기술팀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1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ACPHEED 및 APHECS를 포함한 재난 및 긴급한 위험 대응 협력 업데이트(아세안 사무국)

-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사무국은 ACPHEED와 APEX의 설립과 이행 위주로 발표함. 제13차 아세안+3 회의 이후, 2024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설립 협정 체결을 위한 특별 회의가 개최 되어 7개 조항이 합의되었고, 2025년 3월과 5월에 주최국과의 양자 및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고, 2025년 6월 기준 3개 조항이 보류 중임. 아세안 공중보건 응급상황 조정 시스템(APEX)에 대해서는 아세안과 역내 공중보건 긴급 상황 조율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를 작성하고, APEX의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함. 현재 1단계와 2단계는 완료되었으며, 3단계 실행을 위한 협의도 시작되었다고 설명함. 4단계인 APEX 프레임워크는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비 및 대응의 훈련, 평가체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2025년 1월 지원이 중단되어 미국으로부터 실행 재개에 대한 추가 지침을 대기 중에 있음.

○ 항생제 내성(AMR)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선언 관련 업데이트: 원헬스 접근법 및 AMR 협력을 위한 아세안+3 공동선언문을 통한 AMR 퇴치 협력 업데이트(필리핀)

- (필리핀) 원헬스 접근법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대응 협력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선언과 아세안+3 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협력 현황을 발표함. ASF AMR의 주요 문제점 중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행 계획 초안에 대한 제한적 참여, 부문 간 원헬스 관련 조정 부족, 지속적인 재정 지원 부족, 데이터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제시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세안+3 보건장관 회의에서 이행 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원헬스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지역 계획을 확정하고 비용 책정, 공동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부처 간 플랫폼을

촉진, 재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발 파트너와 자원을 활용, 아세안 부문별 회의 및 기구에 인식 제고할 것을 제안함. 아세안+3 보건장관에게 아세안+3 협력 가능 분야를 식별하도록 장려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ASF AMR 이행 계획의 최종화를 지원할 것을 요청함.

○ 아세안+3 FETN(태국)

- (태국) 아세안+3 FETN은 현장 역학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아세안+3 인력을 강화하여 다분야 평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함. 주요 성과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종합 발병 기법과 실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현하는 통합 고급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합하여 훈련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모델을 개발했다고 보고함. 아울러 공중보건과 동물보건, 환경 분야 간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세안+3 FETN은 지역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있으며, USBC, WHO, FAO 영국 등을 포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발표함. 2024년까지 아세안+3 FETN의 지역 내 공중보건 및 실험실 네트워크와 아세안+3 FETN 네트워크 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전체학 역할 강화와 질병 모니터링 및 대응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함. 2025년 활동은 총돌되는 일부 국제 정책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특히 일부 AMS의 경우 외부 자금이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에 따른 UHC 네트워크 활동(태국)

- (태국) 글로벌 보건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일본-태국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소개함. 지난 15년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아세안 회원국과의 참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태국 보건부 국민건강보장국(The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NHSO)과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시작했으며, UHC 및 글로벌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발표함. 가장 최근인 3단계 프로젝트는 2025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를 위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우선순위 국가와 기타 아세안 국가들의 UHC 이행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고, 2027년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UHC 의제를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태국의 보장 적용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구된다고 발표함.

○ ARCH project(태국)

- (태국) 2022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현재 2단계 시행 중이며, 시행 기관은 태국 공중보건부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아세안의 재난 보건 관리에 대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함. 이를 위해 2025년 2월에 개최될 제6차 지역 협력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등 재난 대응에 관한 아세안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지원했다고 보고함. 2026년에 아세안 공식 재난 보건 관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며,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의제 6: 2025-2026 우선 협력 분야 제안

- (중국) 현장역학 훈련 프로그램,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응, 건강한 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FETN 관련해서는 멘토와 교육생을 파견하여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국제적 발병 대응에 대한 역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세안 사무국과 협력하여 국제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보고함. 더불어 일본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활기찬 노화 관련 연구과정을 운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일본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활기찬 노화 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아세안 공중보건 네트워크 지원 확대, 원헬스 프레임워크 내 전염병 관련 협력 강화를 언급함.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각서를 체결했고, 싱가포르와 제14차 중-싱가포르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협력위원회 공동 개최, 제17차 중한 전통의학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WHO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2024년 전통의학 컨퍼런스 개최 등을 보고함. 학술 교류 측면에서는 중국 아세안 전통의학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주최했고, 라오스 보건부 전통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라오스 전통의학 2권을 편찬했으며,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중의학 의료팀을 파견해 현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함. 올해 중국은 캄보디아에 네 번째 한의학 기술팀을 파견할 예정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 한의학 기관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의학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 중에 있음.
- (일본) 아세안과의 보건 개발 협력에서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표함. 제22차 한-아세안 고위관리회의를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동티모르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건강한 사회를 촉진하는 UHC 달성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함. 일본 후생성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디지털 기술 확장과 아세안 회원국과 함께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2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파트너국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JICA의 협력은 각국의 개발 수요에 따라 감염병 통제부터 생식, 보건 시스템 강화, 비전염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세안 공중보건 응급 및 신종 질병 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어 올해 1월부터 일본에서 총 5명의 임상 전문가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ARCH의 재난 보건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올해 5월 세계재난관리긴급협회로부터 재난관리 우수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으며, 의료 교류 일본(Medical Excellence Japan, MEJ)을 통해 정부, 의료계, 경제 단체 및 의료 업계와 국제 보건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아세안-일본 의료 장학금 프로그램(ERIA)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함.
- (한국)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보건개발 의제별로 분류한 주요 협력 성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국제보건증진재단과 협력하여 아세안 회원국들의 증거기반 건강증진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인도네시아와 담배 규제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논의했고, 9월에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건강 및 지역사회 기반 건강 증진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함. 역내 보건안보 강화 및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세안 센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대비, 훈련 프로그램, 위험 평가, 데이터 개발 및 정보 시각화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함. 2022년부터 아세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2024년 6월과 10월에 감염병 훈련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2024년에는 태국에서 보건 시스템 강화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기 경보 감시 및 증거 기반 교육에 대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지원했다고 발표함. 보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국가 건강보험 설계 시스템과 지불제도 개혁 등을 위한 정책 자문과 국가별 기술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술 지원을 제공했으며,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식품 안전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여 식품 안전과 동물 건강 및 환경 보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젠다 7. 논의 요약 및 합의 및 다음 단계를 위한 논의**

- **(중국)** 2026년에도 양국은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감염병과 보건 비상 대응 및 소통, 전통의학, 건강 증진, 건강한 노화와 아동 보건에 대한 협력도 장려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일본)**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이라는 잠정 의제를 가지고 올해 10월 28일부터 일본에서 건강사회에 관한 한-아세안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한국, OECD와 함께 WHO, 중국과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풍성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아세안 회원국, 중국, 한국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두 번째 우선순위 분야는 올해 9월에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방문을 조직하기 위한 ACPHEED 대응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고함. 일본은 2026년 3월까지 ARCH 프로세스, 일본 내 연수, 아세안 학술회의, 10년간의 ARCH 협력 경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세안 프로세스에서의 포스트 ARCH 협력 사업도 경토 중이라고 발표함. 일-아세안 의료기기 규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의료 교류를 제안함.
- **(한국)**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협력 제안을 간략히 발표함. 첫 번째 협력은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생산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 전문가 역량 강화로, 올해 하반기에 교육, 백신 및 관련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3주 동안 진행되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두 번째 분야는 질병 모니터링 교육으로, 질병관리청은 협력센터, 한-중 지원, WHO 항생제 내성, AMR 협력 등 기존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표함. 세 번째 분야는 보건 재정 및 보험 시스템 협력 확대로, 한국은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건강보험 제도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정책 발표회, 전문가 파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네 번째로 NCD 예방 및 보건시스템 개발을 우선분야로 보고하였음.
- **(아세안 사무국)** 각 의제별로 요약하였으며, 2025-2026년 우선 협력 분야로 상호 운용 가능한 보건 정보 시스템, 감염병 관리, 백신·치료제·진단 개발, 보건 서비스 제공,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식량·영양 안보, 보건인력 역량 강화 등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필리핀)**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제안된 우선순위를 아세안 보건 분야의 2026-2030년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함.

제4차 한-아세안 보건고위급회의 결과 정리

○ 환영사

- **(말레이시아)** 지난 10년간 아세안의 의료보장 증진 및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특히 꾸준한 협력과 귀중한 기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함. 이 회의가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보건 개발에 대한 공동의 영향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함.

- **(한국 발언)**

- **(한국)** 한국과 아세안 간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며, 한국과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최고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언급함. 신종 감염병, 건강 불평등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여 건강과 보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아세안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 시스템 강화, 감염병 의약품 지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표함.

○ **아젠다 2. 안전채택**

- **(사무국)** 의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모든 참가국이 의제 채택에 동의하였음.

○ **아젠다 3. 아세안 관련 회의 주요 결과**

- 2024년 7월 제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4년 8월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2024년 10월 제35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25년 5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5년 7월 24일 제3차 아세안 회의에서의 결과를 공유함. 한국의 지원으로 글로벌 교육 허브, 감염병 대응 교육 등 인력 양성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아세안 국가범직안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보건 장관들이 보건 회복탄력성과 보안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언급함. 제35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보건안보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및 보건안보, 인재개발 등을 논의하였음.

○ 의제 4 및 의제 5

- **(한국)** 아세안 회원국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NGO 및 전문 건강증진재단과 협력하고 있으며, 비감염병 관리, 감염병 확산, 직관 및 지역 기회에 초점을 맞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함. 더불어 한국은 아세안 현대 보건 서비스 센터와 질병 예방 국제 컨퍼런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 2022년부터 한국은 매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감시 및 유전체 조사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감지, 공기 시스템 강화 및 인적 자원 개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더불어 한국은 현재 24년에 백신 전달을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8개국 97명의 전문가가 온라인 교육을 수료했다고 보고함. 아울러 보건 의료 기술 역량 강화 및 보건 시스템 지원 분야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 전문가, 지역, 보건의료기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 왔다고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국가별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도 베트남 규제 당국의 식품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농축수산물 안전 기준 개선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까지 원헬스 기반의 청렴한 식품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한국은 질병, 물질, 진단, 의료 보험 시스템 및 진단, 건강보험 시스템, 캄보디아 국립대학병원 운영을 위한 모성 및 보험 시스템, 미얀마 1차 보건의료 인프라 및 대상별 사업, 인도네시아 의약품 공급망 분석 및 병원약국 관리 관련 학술 사업 시스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함. 미얀마의 의약품 유통 시스템 및 건강보험 개선, 모자보건 교육, 지역사회 보건 부문의 책임성 강화 등 필수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도 기술 교류 및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함.

○ 아세안 회원국 발언

- **(인도네시아)** 한국과 공유된 모든 프로젝트와 정보로부터 인도네시아가 혜택을 얻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디지털 건강과 관련된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언급함. 첫째, 지식 관리 플랫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잠재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2단계는 플랫폼 사용을 위한 통합 및 교육이며, 3단계는 플랫폼의 운영 결정이라고 발표함. 또한 원헬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위한 예측 및 테스트에 사용하는 디지털 건강 및 시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함.
- **(캄보디아)** 캄보디아 일선 직원, 실험실 테스트, 접지 및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를 강화하고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 보건 관리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함. 이러한 의미 있는 협력은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건강 보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통해 공동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함.
- **(필리핀)** 보편적 건강 보장을 수용하고 지지했으며, 필리핀이 의료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건강 보안에 대한 협력, 디지털 건강 강화 노력, 역량 개발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통해 같은 공중 보건 클럽 종사자 네트워크의 영향 지원 및 기독교 건강 시스템 홍보를 약속했다고 설명함. 교류 플랫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파트너십을 장려한다고 발표함.

○ 아젠다 6: 2025~2026년을 위한 우선 협력 분야 논의

- **(한국)** 글로벌 교육 허브 펠로우십 운영, 글로벌 건강을 위하여 협력 강화 및 국민 건강보험 전문 지식 공유 등을 언급함. 더불어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및 ASEAN 국가들의 건강관리 데이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의학 서비스와 공공 건강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운영 및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아세안을 통해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함. 특히 모의 훈련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세안 국가들의 보건의료 동등성, 제도 정보 및 제도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아세안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내부 보조 시연, 디지털 및 지역 내부 네트워크 강화, 보건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설명함. 이는 아세안에서 통합된 인프라와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라고 발표함.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올해 말 한국 정부의 아세안 협력 기금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질병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치료와 진단 분야에서 한국은 연구 기관 및 기관과의 컨퍼런스 및 국내 연구자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를 통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운송 및 현지 생산 호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한국 정부는 아세안에 대한 보건 ODA를 약 54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6억 달러, 그 다음 해에는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아젠다 7~8: 논의 및 합의 내용 요약

- 모든 사무국은 논의된 의제와 관련하여 별도 이견이 없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함.

○ 아젠다 9~10: 제5차 한-아세안 SOMHD 안내 등

- APEC 경주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아젠다 11: 제3차 한-아세안 SOMHD 보고서 채택

- 모든 참여국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었음

